

##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협회 공식 출범 - 2020년 CCS플랜트 상용화... 2곳 대규모 실증사업



이산화탄소 포집·처리(CCS)와 관련된 기업들은 지난달 22일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CCS 기술 개발과 보급 촉진을 위한 '한국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협회'(KCCSA) 창립총회를 열고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한국전력 김쌍수 사장을 초대 회장으로 출범한 협회에는 한전 외에 발전 5사, 중공업체, 건설업체, 엔지니어링업체, 철강업체, 에너지 공기업 등 17곳이 임원 및 회원사로 참여하기로 했다. 앞으로 회원사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지경부는 이날 창립총회에 맞춰 내놓은 'CCS 상용화 추진계획'에서 2020년 CCS 플랜트 상용화를 목표로 2015년까지 10억t 이상 규모의 저장소를 확보하고, 2017년부터 연간 100만t 이상 저장하는 대규모 실증사업 2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핵심기술 R&D를 통해 상용화를 촉진하고, 보급 확산을 위해 정책 및 제도 개선에 주력하는 한편 국제 협력을 통해 관련 기술과 경험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KEA

## 영월천연가스발전소 준공



한국남부발전(사장 남호기)은 지난달 30일 2008년 5월부터 28개월간 총공사비 6,255억 원을 투입해 강원도 영월천연가스발전소를 준공했다.

영월천연가스발전소는 설비용량 848MW로 천연가스(LNG)를 주연료로 사용하는 친환경, 최첨단 복합화력 발전소. 발전소 주기기 공급사인 두산중공업과 함께 국내 최초로 대용량 가스터빈 국산화 제작에 성공했으며 발전소 건설시 외국의 표준을 적용하던 관례를 깨고 복합화력 최초로 국내 전력산업기술기준인 KEPIC을 주기기, 보조기기 설계 및 제작에 적용했다.

남부발전은 28개월간의 건설기간 중 연인원 약 150만 명의 인력 투입으로 건설업계 및 주변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활성화에 기여했으며, 강원도 내 LNG 공급, 발전소 내 테마파크 조성과 함께 1,460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했다. KEA

## UAE 원전 공동 운영 요청... 추가 수익 발생

한국형 원자력 발전소의 터키 수출에 차질이 발생한 것과 달리, 아랍에미리트(UAE)로부터는 '원전 관련 추가 수익 발생 가능성'이라는 희소식이 전해졌다.

지난달 14일 지식경제부와 한국전력공사 등에 따르면 UAE 원자력공사(ENEC)는 최근 자국의 첫 원전 건설 공사를 수주한 한국 컨소시엄 주간사인 한전에 향후 설립될 원전 운영 업체에 지분 참여를 해달라는 요청을 전달했다. ENEC은 원전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기술 등 노하우 확보와 축적을 위해서는 한전이 반드시 동참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전이 이 요청을 받아들이면 UAE 원자력공사와 함께 원전을 사실상 공동 운영하게 된다. 이 경우 한전은 원전 건설공사 수익과 원전의 예상 운영기간인 60년 동안의 기기 및 부품 교체 수익 이외에 원전 운영수익도 추가로 올리게 될 전망이다. KEA

## 전력수요 20% 신·재생 에너지로



제주도가 2020년까지 전체 전력수요의 20%를 신·재생 에너지로 대체하고, 자전거 교통 부담률을 10%까지 높인다.

제주도는 2020년도를 목표로 한 '세계 환경수도 조성 기본계획안'을 마련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2009년 4.8%에서 2012년 9%, 2020년 20%로 확대하는 한편 스마트 그리드 참여가구도 2012년 2000가구, 2020년 17만가구로 늘릴 계획이다. KEA



## 서남해안 해상풍력에너지 메카 만든다



전남 부안·영광 앞바다에 대규모 해상풍력단지가 들어선다. 정부는 서남해안을 해상풍력에너지 메카로 키우고 이를 제주도, 남해안으로 넓혀 세계 3대 해상풍력에너지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지식경제부는 지난달 2일 영광원자력발전소에서 한국 전력과 발전 5사, 한국수력원자력, 중공업체 등으로 구성된 '해상풍력추진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해상풍력 추진 로드맵'을 확정했다. 서남해안 해상풍력단지는 민·관 합동으로 9조 2590억 원을 투입해 2500MW 규모로 조성된다. 2500MW는 10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이다.

정부는 내년에 1단계 사업을 시작, 2013년까지 부안·영광지역 앞바다에 5MW급 해상풍력 발전기 20기를 설치, 100MW 규모의 실증단지를 조성한 뒤 2016년에 이를 900MW 규모의 시범단지로 확대하고, 2019년에는 2500MW로 용량을 늘려 나가기로 했다. KEA

## 한·미 스마트 그리드 표준협력 강화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지난달 2일 스마트 그리드 세계 최고 기술을 보유한 미국의 국립표준기술원(NIST) 및 국제전기전자기술자협회(IEEE)와 표준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기술표준 협력 방안은 ▲기술표준원과 NIST 간 한·미 스마트 그리드 협력포럼 구성 ▲미국 스마트 그리드 상호운용성 패널(SGIP)과 한국 SG표준화포럼 간 별도 협의체 구성 검토 ▲양국의 스마트 그리드 관련 민·관 전문가의 상호 방문 ▲공동 워크숍·세미나 개최 및 국제 표준화 추진 시 상호협력 등이다.

기표원은 이번 협력방안을 통해 최대 스마트 그리드 시장인 미국에 우리 기술을 수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했으며, 선진기술이 국내에 조기 실용화돼 국내기업이 국제 경쟁력을 갖추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KEA

